News & Views

美日, 新 SDI 공동 개발 연구

美국방성이 작년에 시작한 新SDI 공동 개발 연구에 일본의 참가를 4월 중순 교토(京都)에서 열린 미일 리더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였음은 이미 국내 일간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다. 新SDI란 美국방성이 발표한 '限定的 미사일 공격 방어 시스템(GPALS)'으로, 원래 舊蘇聯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레이저나 粒子빔 武器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邀擊하는 構想인데 반해, GPALS는 제 3세계에서의 미사일 공격을 美본토나 동맹국에 지상 배치한 고성능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당초 「新SDI는 돈벌레이다」라고 비난하는 美의회의 반대를 누르고 부시 대통령이 발족시킨 것인 만큼 공동 개발에 대한 일본의 자금 협력에 美國측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美국방성은 내년 일본 방위청이 시작하는 自衛隊의 지대공 미사일'新·中 SAM'의 개발을 이 SDI 공동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美國에서 日本으로의 기술 이전이 이제부터는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美日 양국 정부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防衛에 관한 장비 기술 협의를 갖고, 美日 무기 기술의 새로운 교류를 겨냥한 專門家 레벨의 '武器技術交流特別委員會(가칭)'를 신설하였다.

현재 일본은 이미 독일, 영국과 함께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邀擊 시스템의 공동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연구 참가자는 「美日 안보 조약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민간 기업체에 한해서 연구에 참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新SDI에는 일본 정부가지 연구에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측에 의하면 美國측은 미사일 유도를 위한 센서 기술과 자금 협력을 일본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개발은 무기 수출 3원칙이나 우주의 평화 이용의 원칙에 접촉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발빠른 행동은 자제해 왔으며, 기존의 SDI 구상에도 민간 防産 기업만 참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 간 협력에 발맞추어 일본측의 민간 기업도 美국방성의 新 SDI에 참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三菱重工, 일본 전기, 미쯔비시 전기, 히다치 제작소, 일본 무선, 후지쓰, 미쯔비시 SPACE SOFTWARE, 미쯔비시 상사등 8개 사는 88년에 美日 공동으로 진행중인 서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위 구상 연구(WESTPAC)가 새로운 단계로 옮겨지는 것을 계기로 하여 이번 新SDI 참가를 전제로 재계약에 들어갔다. 새로운 단계로 향하는 WESTPAC은 新 SDI의 핵심체가 될 一環으로 위치가 정해졌고, 따라서 일본 8개 사의 연구도 GPALS의 안에 들어가게 된다.

더욱이 민간 기업체가 정부의 연구 기관에 앞서서 新SDI 공동 연구에 발을 들여 놓은 것으로 美國측에서 볼 때 官民 합동의 공동 개발에의 요청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 향후 개최될 「무기 기술 교류 특별 위원회(가칭)」나 美日 안보 각료 회의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미일 간 무기 기술 협정은 87년의 SDI 연구 참가를 배경으로 88년에 미일 신과학 기술 협정, 미일 방위 특허 협정이 체결되면서 더욱 긴밀하게 되었다. 일본의 과학, 기술상의 성과에 안전 보장의 규제의 網이 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新SDI 연구에의 官民 합동 참가가 실현된다면, 공동 연구의 성과를 다룰 법적인 면의 정비도 과제라 하겠다. 아무튼 일본 정부의 직접 참여 또는 간접 참여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민감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은 물론이고 또한번의 덩치 큰 미일 과학 기술 협력이 국방 과학 기술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안보-기술-자금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일본지 '주간 다이아몬드' 5월 9일 호를 기초로 쓰여졌음)

박 동 현

(동향 분석 연구실)